

“조계종 ‘새 틀’ 짜야할 때”



특별좌담 - 조계종 희망심기 코드는?

조계종의 위기가 거론되고 있다. ‘침화와 자정 결의’ 만으로는 오늘의 총체적인 부실을 극복할 수 없다는 지적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일반인들은 공중파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비쳐진 ‘오염된 불교’가 마치 오늘의 한국불교 전체인양 인식하고 있다. 지금 조계종은 정치화·권력화와 권위주의에 젖어 급박한 사회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위기가 한번은 겪어야 할 위기라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새로운 불교’를 만들어 내는 ‘새틀짜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새로운 불교’는 오늘의 문제를 보다 냉철하게 진단하고 인식하는데서 비롯될 것이라 신념으로 좌담을 마련했다.

- ▲참석자: 현각 스님(원주 성불원 주지)·윤세원 교수(인천전문대, 우리는선우 운영위원장)·김광식 교수(부천대, 불학연구소 연구원)
- ▲진행: 임연태 본지 부국장

▶임연태: 요즘 불교계가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10월 19일 봉암사에서 ‘봉암사결사 60주년 기념 대법회’를 통해 침화와 자정의 의지를 보였지만, 아직 후속 조치는 이렇다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계종이 지금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원인과 향후 종단이 정정교단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언을 듣고 싶습니다.

▶김광식: 현재 조계종단의 위기는 ‘위기의식이 없다’는 데서 기인합니다. 그동안 아무런 위기의식이 없이 현상의 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감각했던 결과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이 났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꺼야할지 알 수 있을 텐데 불이 났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이런 위기와 직접 연관이 없다 해도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은 어떤 형태로든 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각 스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출현수범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중들이 따르지요. 이번만 해도 비상사태까지 생각해야 할 시점에 총무원의 일부 부장을 교체하고 그친 것은 과거의 답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한된 인력에서 보직을 순환시키는 것을 보면

종무기관 ‘위기 불감증’ 만연

승가사회 ‘소통 불능’도 문제

참회 이어 ‘구체적 대안’ 필요

위기불감증이 너무 만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임연태: 봉암사 결사에 중앙총회의원 80명중 30여명만 참석했다는 사실도 불감증의 만연을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땅이 찢었다는 이유로 ‘참회의 10배’를 하지 않고 합장 반배만 한 것도 그렇고요. 봉암사 법회가 일회성 이벤트로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김광식: 이번 대법회는 외부의 충격에서 방어적인 논리와 성찰을 보이려는 이벤트성격이 짙습니다. 구체적인 진단과 대안 없이 ‘부처님 뜻대로 못살았다’ ‘무조건 참회 한다’는 진단은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상세한 진단과 구체적인 대안이 따라야 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을 내려야 치료를 하든지 수술을 시키든지 할 것 아닙니까.

두 가지로 진단해 보자면 1954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는 정화이념이 지배했습니다. 정화운동은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초로 넘어

오면서 계승되지 못하고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를 했지요. 여기서 현 위기 상황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1980년대 초반부터 종단개혁의 목소리(불교의 사회화, 민주화)가 있었고 1994년 개혁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최근 10여 년간 이 역시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화의 이념이나 수행성을 내세우지 않으면 노장스님들의 공감을 구할 수 없고, 현재 개혁의 틀을 부정하면 종진스님들의 공감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이 필요합니다.

▶윤세원: 김 교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승가, 재가를 막론하고 불교계는 삶의 현장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재가를 예로 들면 지나치게 기복에 치우쳐 있습니다. 현재 불교는 절 안에서만 존재하지 절 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정치권력과의 유착 관계는 지양해야 할 과제입니다. 최근의 뉴스 보도로 삼보종 하나인 승가가 마치 권력에 빌붙어 돈이나 뜯어먹는 범죄 조직처럼 비추고 있고 질 않습니까? 절집에서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데 그것도 결여돼 있습니다. 사회적 인재 양성도 하지 않고 수행자를 키우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한국불교 현재의 모습입니다.

▶현각 스님: 드러난 현상을 놓고 사람마다 여러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승단과 관계된 현상의 내면은 경험자가 아니면 알 수 없지요. 때문에 승단 안에서 터뜨려야 하는데 현재 종단이 그러지 못했으니 너무 아쉽습니다. 승가구조 내의 소통이 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안거를 하면 3년의 1시점이 됐을 때 스님들끼리 문제를 제기하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다가 안거를 깨고 선원을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수행에 대한 애정과 치열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안거에 들면 한 명도 따르는 이가 없습니다. 실사 문제를 인식하더라도 제기하는 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수행에 대한 애정과 치열함이 그만큼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승단 자체가 그만큼 무기력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예로 <평화수업>이라는 책을 보면 “평화는 인류역사상 줄곧 주장했으나 평화로 해결되는 법을 배우기는 쉽지 않다”란 구절이 나옵니다. 현재의 불교 위기는 불교가 배우지 못하고 내면적인 시절 때문이라고 봅니다. 전체승가집단에 교육의 시간이 적었고 혼란기를 거치며 병어리가 되어 굳어졌습니다. 권력과 돈을 이야기하지만 승가사회도 결국 사바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사회에서 재가자들이 보고 버리는 승가생활은 부당스럽고 어렵습니다. <2면에서 계속>



조계종 첫 비구니 명사(明師) 법계

한국불교 사상 최초로 비구니 명사(明師) 7명이 탄생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10월 23일 합천 해인사에서 해운 스님(前 운문사 주지)을 비롯한 비구니스님 7명에게 명사법계를 풍사했다. 명사는 비구니스님에 대한 최고의 법계로 수행력과 지도력의 상징이다. 이날 해운 스님을 비롯해 광우 스님(前 전국비구니회장) 묘연 스님(봉암사 승가대학장) 지원 스님(금려사 주지) 명성 스님(전국비구니회장) 정훈 스님(영화사 주지) 정희 스님(前 견성암 선원장)이 조계종 중장급 법전 스님으로 부터 명사법계를 풍사 받았다. 지원 스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풍사식에는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해 비구니명사 풍사를 축하했다.

한국불교 사상 최초로 비구니 명사(明師) 7명이 탄생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10월 23일 합천 해인사에서 해운 스님(前 운문사 주지)을 비롯한 비구니스님 7명에게 명사법계를 풍사했다. 명사는 비구니스님에 대한 최고의 법계로 수행력과 지도력의 상징이다. 이날 해운 스님을 비롯해 광우 스님(前 전국비구니회장) 묘연 스님(봉암사 승가대학장) 지원 스님(금려사 주지) 명성 스님(전국비구니회장) 정훈 스님(영화사 주지) 정희 스님(前 견성암 선원장)이 조계종 중장급 법전 스님으로 부터 명사법계를 풍사 받았다. 지원 스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풍사식에는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해 비구니명사 풍사를 축하했다.

백제시대 사리장엄구 발굴

사리기 봉안수법 확인...귀금속 장신구 등도 발견

백마강에 위치한 백제시대 목탑지에서 사리기가 봉안된 사리장엄구가 발굴되었다.

김용민 소장(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은 10월 24일 부여 왕흥사지 제8차 발굴조사 자문위원회 회를 통해 “이번 발굴로 사리기의 봉안수법과 목탑 심초부 조성에 대한 새로운 기법이 확인됐다”며 “사리장엄구를 비롯해 사리함에서 왕흥사 장건(577년)과 관련된 명문기를 인식하더라도 제기하는 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수행에 대한 애정과 치열함이 그만큼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승단 자체가 그만큼 무기력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왼쪽부터 금제사리병, 은제사리병, 청동사리함

예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발굴 의미를 전했다.

사리함(높이10.3cm)은 장방형 심초석(100×110cm) 남쪽 끝단에 16×12×16cm의 크기로 마련된 사리공 내부에 단면 사다리꼴의 화강암 뚜껑에

덮여 봉안돼 있었다. 재질은 청동으로 원통형 동체에 보주형 손잡이가 부착된 볼록한 뚜껑을 덮었다. 함 내부에는 다시 은제사리병(의병)을 봉안했고 이 은제사리병 안에 다시 금제사리병(내병)이 봉안돼 있었다. 실제 사리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명문은 사리함 동체부에 5자6행의 음각체로 ‘정유년 2월 십오일 백제왕 창이 죽은 왕자를 위하여 절을 세우고 본래 사리 두매를 묻었을 때 신의 조화로 셋이 되었다’고 적혀있다. 이 기록을 통해 왕흥사의 실제 축조연대가 577년(위덕왕24년)이라는 것과 위덕왕이 597년(위덕왕44년) 일본에 사신으로 보낸 아좌(阿佐)태자 외에 또 다른 왕자를 두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발굴로 백제 문화의 우수성이 다시금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조동섭 기자

고품격 장수 필요식품 100%천연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꽃이 오르지 않고 향 우의 약성을 선택하는

❖산사 참 울 조청
1.2Kg - 현 시세

❖산사 약도라지 조청
1.2Kg - 현 시세

불자님들을 위한 정성 산사조청원
주문처 054-373-3166
입금계좌 : 농협 727077-92-056761(여금주-민호씨)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업업무 : 민사·형사·가사·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1 031 387-5400 | 팩 스 031 387-5409
휴대폰 1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선 변호사)

경기도 안성시 동안구 관평동 1597 한양빌딩 206호 (명운역 도보 5분)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 후보자 선출 공정 선거를 위한

공동 결의문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하여 오는 10월 31일 마곡사 산중총회가 개최됩니다. 마곡사에서는 전임 주지 후보자 선출 과정과 교구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고, 결국 전임 주지사님이 사법부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마곡사는 물론 조계종단 전체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명예가 실추되는 어려움을 겪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번 마곡사 주지 후보자 선출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성을 기하고 중헌 중법을 준수하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후보자를 비롯하여, 교구 본사 총무소, 중앙과 교구의 선거관리위원회, 총무원 등 관계자들의 강력한 공정선거 의지가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마곡사 주지 후보자 선출에 있어 관계자와 관계기관 모두는 중헌 중법에 따라 적법하게 임할 것이며, 어떠한 부정과 탈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합니다. 선거 관리 관련 기관은 공정 선거를 위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이를 어길 시 의법 조치할 것이며, 입후보자는 상호 비방과 부정·탈법 행위를 하지 않고 선거 결과에 절대 승복할 것임을 결의합니다.

이번 마곡사 주지 후보자 선출 과정을 통해 조계종단과 마곡사의 신뢰를 회복하고 중도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정 선거의 모범을 보여 줄 것임을 다시 한 번 결의합니다.

불기 2551(2007)년 10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 총무원 총무부장 원학 호법부장 서리 정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도공 제6교구 선거관리위원장 해원 마곡사 주지 직무대행 덕상
 마곡사 주지 입후보자 양산·무일·범용·원혜